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6.1.7.(수) 조간	배포	2026.1.6.(화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감독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한태진 (02-3145-7466) 조사역 곽현지 (02-3145-7479)

'25.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*

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* 예별손보(舊 MG손보)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의무가 없으므로 '25.9월말부터 K-ICS비율 집계에서 제외

1.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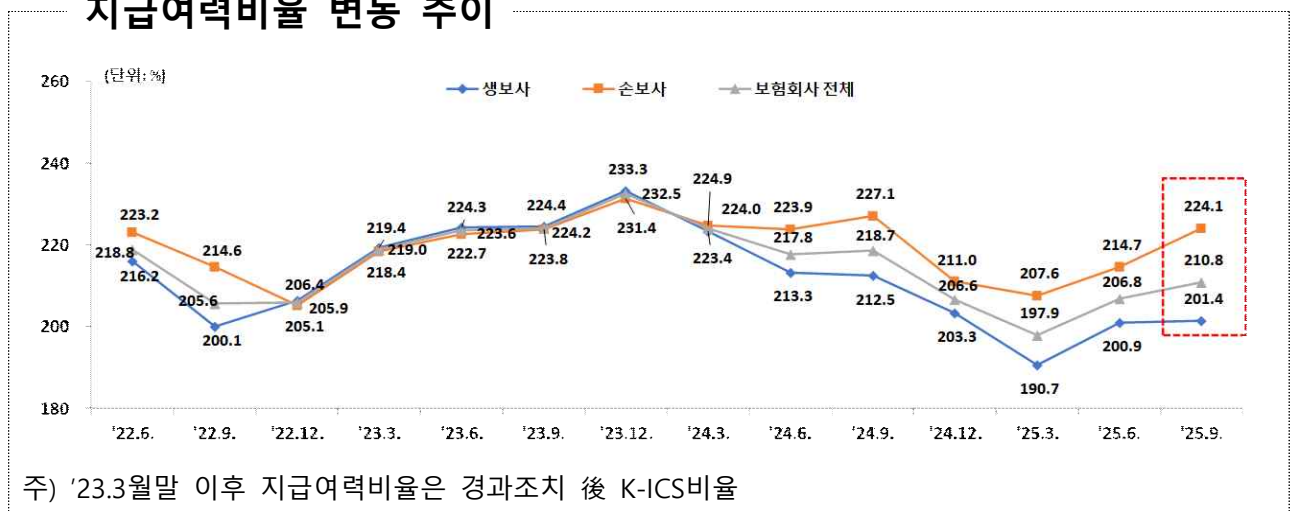
□ (경과조치 後) '25.9월말 경과조치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(K-ICS)** 은 210.8%로 전분기(206.8%) 대비 4.0%p 상승

* 18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6개사)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

*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○ 생보사 201.4%(전분기 比 +0.5%p), 손보사 224.1%(전분기 比 +9.5%p)

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<참 고>

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□ (경과조치 前) '25.9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은 196.8%로 전분기(192.1%) 대비 4.7%p 상승

○ 생보사 183.1%(전분기 比 +2.0%p), 손보사 217.0%(전분기 比 +9.5%p)

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- (가용자본 ↑) '25.9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74.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.1조원 증가
 - 당기순이익 시현(+3.3조원)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(+7.1조원), CSM 증가(+3.0조원) 등에 기인
- (요구자본 ↑) '25.9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30.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.3조원 증가
 -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(+6.5조원)와 듀레이션갭 축소로 인한 금리위험액 감소(△2.2조원)가 상호 상쇄된 결과 등에 기인

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'25.6월말 (A)	'25.9월말 (B)	증감 (B-A)	'25.6월말 (C)	'25.9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56.8	271.3	+14.5	260.6	274.7	+14.1
요구자본(조원)	133.7	137.8	+4.2	126.0	130.3	+4.3
지급여력비율(% , %p)	192.1	196.8	+4.7	206.8	210.8	+4.0

3. 향후 감독방향

-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
- 또한,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

▶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ALM·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

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
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 ¹⁾		
	'25.6월말	'25.9월말	증감	'25.6월말	'25.9월말	증감
삼성	186.7	192.7	+6.0	186.7	192.7	+6.0
교보	152.7	157.2	+4.4	199.2	205.2	+6.0
한화	160.0	158.2	△1.8	160.6	158.2	△2.4
신한라이프	199.6	189.7	△9.9	199.6	189.7	△9.9
농협	258.4	261.4	+3.0	437.2	431.8	△5.3
KB라이프	250.6	253.5	+2.9	250.6	253.5	+2.9
미래에셋	183.5	183.0	△0.5	183.5	183.0	△0.5
흥국	159.2	160.5	+1.2	208.3	208.6	+0.3
KDB	43.3	43.5	+0.2	176.6	165.2	△11.5
IBK연금	138.4	143.6	+5.2	236.4	246.3	+9.9
DB	166.9	174.3	+7.4	215.0	227.2	+12.2
iM라이프	95.1	101.8	+6.7	187.9	203.2	+15.3
하나생명	136.4	136.5	+0.0	182.2	178.8	△3.4
교보플래닛	165.7	192.2	+26.4	214.9	261.5	+46.6
동양	172.1	173.6	+1.5	177.0	173.6	△3.4
메트라이프	332.5	310.8	△21.6	332.5	310.8	△21.6
AIA	227.8	210.5	△17.3	227.8	210.5	△17.3
ABL	105.4	107.9	+2.5	169.1	165.3	△3.8
푸본현대 ²⁾	-10.1	2.9	+13.1	164.9	174.1	+9.3
라이나생명	360.3	359.9	△0.4	360.3	359.9	△0.4
카디프	318.2	343.2	+25.1	318.2	343.2	+25.1
처브	135.8	144.7	+9.0	174.7	189.0	+14.2
생보사	181.1	183.1	+2.0	200.9	201.4	+0.5

1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으로 작성
(☞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음영 처리)

2) 푸본현대: 유상증자(7,000억원, '25.12월) 반영 시 '25.9월말 K-ICS 비율은 245.8%(경과조치 前: 56.1%)

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 ¹⁾		
	'25.6월말	'25.9월말	증감	'25.6월말	'25.9월말	증감
삼성	274.5	275.9	+1.4	274.5	275.9	+1.4
DB	213.3	226.5	+13.2	213.3	226.5	+13.2
현대해상	170.0	179.8	+9.8	170.0	179.8	+9.8
메리츠	239.8	243.7	+3.9	239.8	243.7	+3.9
KB	191.5	191.2	△0.3	191.5	191.2	△0.3
한화	179.5	178.4	△1.1	214.3	212.7	△1.6
롯데	108.7	115.3	+6.6	129.5	142.0	+12.5
흥국	175.8	174.1	△1.6	220.8	220.4	△0.4
농협	130.2	135.4	+5.1	164.2	172.5	+8.3
하나손보 ²⁾	141.3	123.6	△17.7	141.3	123.6	△17.7
캐롯손보	67.1	47.9	△19.1	67.1	47.9	△19.1
신한EZ	309.9	281.4	△28.5	309.9	281.4	△28.5
카카오페이	214.5	566.9	+352.5	214.5	566.9	+352.5
코리안리	204.4	206.6	+2.1	204.4	206.6	+2.1
서울보증	427.5	415.8	△11.7	427.5	415.8	△11.7
AIG	248.7	249.0	+0.2	248.7	249.0	+0.2
AXA	218.4	212.9	△5.5	256.1	250.5	△5.7
스위스리	199.2	182.1	△17.1	199.2	182.1	△17.1
스코르리	176.5	173.8	△2.7	191.1	188.1	△3.1
라이나손보	235.3	237.6	+2.3	235.3	237.6	+2.3
뮌헨리	232.3	241.4	+9.1	232.3	241.4	+9.1
RGA	201.4	200.4	△1.0	201.4	200.4	△1.0
알리안츠	190.2	190.6	+0.5	190.2	190.6	+0.5
퍼시픽리	271.4	156.6	△114.8	271.4	156.6	△114.8
팩토리	445.6	399.2	△46.4	445.6	399.2	△46.4
제너럴리	270.0	269.1	△0.9	270.0	269.1	△0.9
미쓰이	451.9	463.1	+11.2	451.9	463.1	+11.2
하노버리	193.6	202.9	+9.2	193.6	202.9	+9.2
퍼스트	198.6	207.4	+8.8	198.6	207.4	+8.8
스타	2,008.2	681.3	△1,326.9	2,008.2	681.3	△1,326.9
마이브라운	-	1,083.5	신규	-	1,083.5	신규
손보사	207.6	217.0	+9.5	214.7	224.1	+9.5

1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으로 작성
(☞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음영 처리)

2) 하나손보 : 유상증자(2,000억원, '25.10월) 반영 시 '25.9월말 K-ICS 비율은 173.2%

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☐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

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
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
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: 적용기간 최대 10년☐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

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
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☐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

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
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☐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☐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
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